

매년 수천억 빛내 살림 수조원 투자 엄두 못내

뉴스초점
광주 도시철도2호선 연기론 왜?

“시민 복지차원서 접근해야”
예산 노선 주변 주민 등 반발

수조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놓고 연거름이 급부상하고 있다.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 때문이다. 당장 내년이면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을 여는데다가 KTX호남선도 개통되지만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엔 빛을 내지 않은 한 불가하다. <관련기사 3·8면>

여기에 장기적으로 광주 공군항 이전(3조5000억원), 개인소유 도심공원 해제에 따른 부지 매입 및 공원조성(1조6368억원) 등 대형 사업과 지하철·시내버스·제2순환도로 재정 보전예다 매년 급증하는 복지비도 해결해야 한다.

광주시의 교통 여건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우수하다는 점도 도시철도 2호선의 연기 또는 불가론에 힘을 실는 부분이다. 오히려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등 미래 먹거리 사업과 지금 당장 교통난을 호소하고 있는 수완·첨단 지구 등의 버스노선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렇다면 광주시의 재정 상태는 도대체 얼마나 열악한 것일까?

광주시의 중기재정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3조8500억원 중 사회복지비 예산만 1조3940억원으로, 올해보다 1613억원이 늘었다. 이는 전체 예산의 36%나 된다. 또한 시는 U대회 운영·시설비로 1000여억원이나 반영한 상태로, 내년 살림을 꾸리기 위해선 기존 빛 2238억원에 추가로 623억원의 빛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광주의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꼽히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건설과 관련한 자동차산업밸리 예산 등은 겨우 4억원을 반영하는데 그쳤으며, 민선 6

기 역점사업인 ‘중국프랜들리사업’도 7억원이 배정됐을 뿐이다.

비교적 사정이 나은 해로 분석되는 2016년이 돼도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투자가용재원은 연간 3000억원 수준에 머무른 반면 재정수요는 5700억원대로 증가해 최소 2500억원 이상 빛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이는 사업비 30억원 이하 사업과 2조원대에 육박하는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등을 제외한 것으로, 시의 재정 여건이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2호선 개통 시점인 2025년이면 광주의 획기적인 대변화가 없는 한 노인인구는 현재보다 9만여명이 늘어난 25만여명(전체 인구 152만여명 추정)으로 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재정을 충당할 경제활동인구도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정살림으로 치면 빛은 많은 데 버는 돈은 줄고, 쓸 곳은 많아지는 것이다. 결국 재정자립도도 현재 36%에서 20%대로 추락하면서 정부 도움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는 이러한 재정 여건에서 2024년까지 도시철도 건설비로 매년 최소 800억원 안팎을 투입하고, 개통 후 1·2호선 운영비로만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주저하는 이유다. 도시철도 1·2호선의 예상 수송 분담률이 11.21%에 불과하다는 점도 약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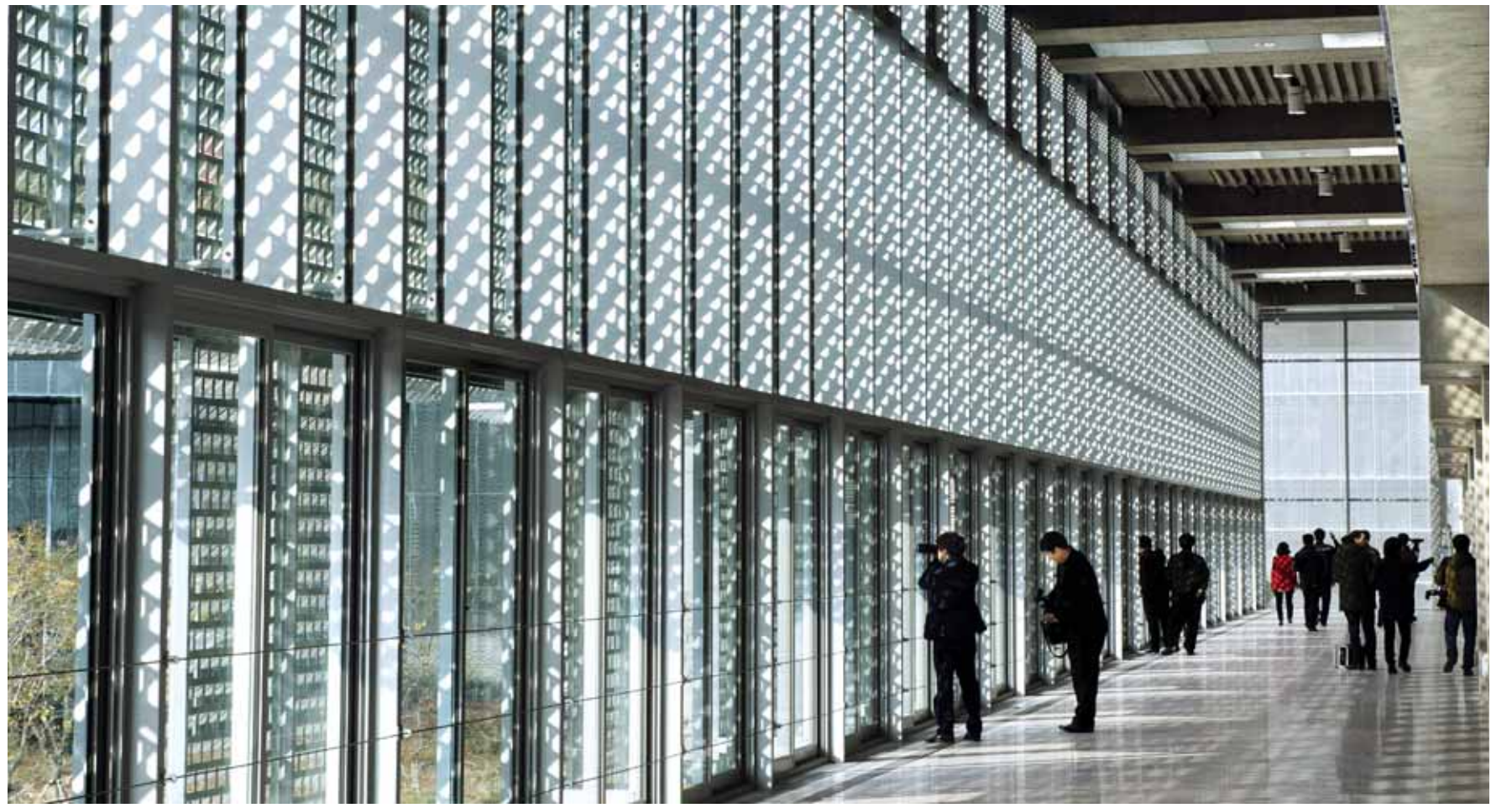
또한 현재 광주시내의 승용차 평균 주행속도(34.3km)와 출퇴근 소요시간(27.6분)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빠르다는 점도 2호선 건설의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추진해온 공직자와 노선 주변 시민 및 해당 지역구 정치인, 건설업체 등의 반발도 적지 않다.

광주·전남 12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건설단체연합회는 17일 호소문을 통해 “도시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시민 편익을 위한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정적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참사’ 담양 펜션 특혜 의혹 ▶6면
김장 등 월동준비 이렇게 ▶18면

200여m 대형 유리커튼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1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유리창을 통해 내부공간으로 스며드는 은은한 오후 햇살이 ‘빛의 숲’을 연상케 하고 있다. ‘빛의 숲’은 문화전당의 건축철학이다. 문화전당 외벽은 스테인리스 패널에 촘촘히 구멍을 뚫은 마감재로 단장돼 시시각각 변하는 빛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도록 설계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화전당 신축 4개 건물 언론에 첫 공개...첨단 건축공법으로 개방감 살려

오늘부터 시민 관람신청 받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은 ‘열린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이라는 비전에 걸맞게 드넓은 건물 내부에 오후의 은은한 햇살을 풍성하게 끌어들이고 있었다. 예술가들이 작품의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하도록 과감하게 창작공간에서 기동을 생략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의 칸막이를 모두 유리로 만든 배려도 돋보였다.

<관련기사 3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17일 문

화전당을 시민들에게 본격 공개하기 위해 앞서 언론에 첫 선을 보였다.

공개 공간은 문화전당을 구성하는 5개 원 가운데 지난해 말 완공된 4개 신축건물(문화창조원·예술극장·문화정보원·어린이문화원)이다. 추진단은 이날부터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문화전당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화전당 공간 곳곳에는 창작자들을 고려한 첨단공법들이 숨겨져 있었다. 문화창조원 북쪽전시관의 높이는 무려 18m로 대형 작품을 설치·전시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정보원과 창조원 건물을 지탱

하는 기둥과 기둥간 거리는 24m에 달한다.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갯수를 줄이는 대신 하중을 횡으로 지탱하는 보에 철강선을 넣는 공법(포스트 텐션·Post Tension)을 채택한 덕분이다. 이 공법은 주로 현수교를 만들 때 쓰는 것으로, 문화전당의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채택됐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공연무대인 아시아 예술극장은 공연 무대를 야외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벽을 만들지 않고 접이식 대형 유리커튼(Big Door)을 설치했다. 폭 32.5m, 높이 14.65m에 달하는 유리커튼을 접으면 야외에서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문화전당 내부를 걷다보면 바닥면이 텅 비어 있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 바닥면 아래에 공간을 확보해 실내의 공기 순환 시스템, 전기배선 등을 모두 집어넣었다. 인텔리전트 건물에 쓰는 액세스플로어(Access Floor) 공법이다.

어린이문화원은 창틀 없이 가로 2.6m 세로 1.5m 크기의 대형 유리판 300여장을 케이블에 고정하는 케이블 넷(Cable-Net) 공법을 도입, 높이 6m 길이 300m에 달하는 커튼월(Curtain Wall)을 만들었다. 어린이극장은 무대에서 객석(계단식)까지 같은 재질의 나무를 이어붙여 만들었기 때문에 한덩어리처럼 보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정시 12만7569명 선발...전체 정원의 34.8%

전남대 1911·조선대 1655명
모집군별 한 곳만 지원해야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정시모집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2만7569

명을 모집한다. 원수 접수기간은 12월 19일~24일이며, 대학별 전형은 내년 1월 2일부터 가·나·다 군별로 시행된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은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올해 정시모집

에서는 197개 대학이 전체 모집인원 36만 6821명의 34.8%인 12만7569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에서는 전남대 1911명, 조선대 1655명, 순천대 710명, 목포대 538명, 광주대 453명, 광주교대 143명, 동신대 130명, 호남대 115명, 광주여대 108명, 남부대 73명, 광신대 31명, 광주과학기술원 25명 등을 뽑는다.

전형 기간은 가군이 내년 1월 2일부터, 나군은 내년 1월 12일부터, 다군은 내년 1월 21일부터 진행된다. 정시에서는 모집군별로 대학 한 곳에만 지원해야 한다. 한 개 모집군에 2개교 이상 지원하면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단 산업대나 카이스트, 3군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별법에 따른 대학은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5년
학부 정시모집
12월 19일(금)~24일(수)
문의: 062)605-1114
전기대학원 신입생 모집
12월 1일(월)~9일(화)
문의: 062)605-1115

**끌어올리세요
당신의 아름다움**
헤라 모디파이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헤라 모디파이어- 탄력의 중심에 작용해 매끈하고 탄탄한 피부로 한 차원 올려줍니다. 이제, 당신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의 시선이 향합니다.

HERA
MODIFIER
Cell-Bio Layer Balm
ANTI-WRINKLE
REVITALIZING
FIRMNESS

*유명백화점이나 이모러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90-023-5454(수신료유급부담) www.hera.co.kr